11. 천국에 가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부모님

12. 교회 내에 여러 팀과 위원회 중 가장 일해 보고 싶은 곳

등산팀에서 땀 흘리고 싶음

13. 내가 요셉이라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 그리고 그 이유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고 싶다

14. 나의 최고의 장점

인내심, 신앙 안에서 인내하며 견디기.

15. 나의 최대의 약점

나이가 들며 집중력이 떨어져 성경을 아는 지식과 학습이 저조하다

16.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 성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7. 말씀 중 나를 가장 찔리게 하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 중)

18. 아이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9. 나의 신앙의 다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바른 판단력으로 다른 이를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다시 시작하는 순복음 라이프지 위원들에게 한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문서위원회 여러분 파이팅 !!!

2016년도 표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자』 (엡 4:12)	NEW 순복음Life 제1호	발행일 : 2016. 4. 25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4월의 기도〕

봄을 대하며

그 옛날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자연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기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생명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봄이기에 흐르는 계곡의 물을 보면서
생명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조화롭게 하셨고
일련의 그 과정들은 질서를 지키면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봄이 만들어 낸 생명들을
우리는 느끼고
그 안에서 충만히 살아갑니다.

여기에 서 있는 우리가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는 자되고
봄을 느끼며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한승권 목사>

<이달의 신앙 간증>

- 전수현 권찰 -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니긴 하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건 1년 전부터였습니다.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교회에 갔었습니다. 지금도 자랑할 만한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온 맘 다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 제가 겪은 소중한 경험을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1월에 목사님께서는 신년맞이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계획하시고 모두 동참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견디며 새벽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특별새벽기도에서 저도 모르게 집을 구하는 기도가 되더라구요. 결혼 13년차이지만 친정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저렴하게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다보니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저에겐 너무 과한 소망이었기에 감히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결코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감동대로 했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완전하시고 나의 모든 걸 이미 알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은 안되었지만 주님은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일주일 만에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새벽기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새벽제단을 꼭 승리하자' 라고요. 남편은 다른 예배에는 다 나가도 새벽기도만큼은 싫다고 이야기 했었지만 지금은 몇 번의 상의 끝에 허락을 받아 열심히 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모습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런 체험 속에서 저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온전해 짐을 느낍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성도를 알아가는 질문 스무 가지

1. 이름과 나이
   김동연, 1961년 7월 20일 부여에서 출생

2. 권사님과 어디서 처음 만나셨으며 그때의 첫인상
   남산 레스토랑에서 소개로 만났으며,
   첫인상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좋은 이미지 였음

3. 회사에서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작년까지는 영업팀에서 일했으나 현재는 축산사업단에서 한우 이력제를 담당하고 있음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다 기억에 남지만 두 자녀, 정민이 정석이가 가장 기억에 남음

5. 몇 살까지 사시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
   80까지, 남은 25년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서

6. 자녀를 키우며 가장 기뻤던 때와 가장 슬펐을 때
   늘 기뻤으며, 슬픈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음

7.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그리고 그 교회 이름
   중 2학년 누나를 통하여 교회에 가기 시작, 초촌 중앙 성결 교회

8. 그동안 성경은 몇 독쯤
   10독을 향하여 전진함.

9. 본인의 신체부위 중 고치고 싶은 곳 딱 한 곳, 그리고 그 이유
   이마, 거울 볼 때마다 이마가 항상 아쉬움.

10. 권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 한가지만
    김순미 권사님, 넓은 마음을 가져주세요.

♣ 이달의 issue

20대 총선의 이모저모

이번 20대 총선은 그 어느 때의 총선보다 반응이 뜨거웠다.
사전투표율 또한 다른 어떠한 해 보다 높았다.

총선이 다른 해 보다 투표 열기가 높았던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서울의 몇 지역에서는 투표를 하지도 않은 사람의 투표서명을 다른 사람이 해서 정작 본인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분명 본인은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아 본인의 이름을 말하고 투표를 하려했지만 본인의 이름 서명 난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서명을 해 넣은 상태였다. 선관위에게 본인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과 함께 다시 투표장을 찾아 설명했고 그리고 나서야 다른 지역의 동명이인이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선거는 할 수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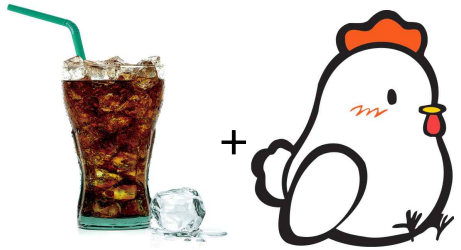
선관위들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진행을 했지만 다른 투표소에서의 동명이인까지는 걸러내지 못하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 하게 된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거 하나 하나 까지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조화롭게 만드심을 보며 위대하시고 경의로우심을 느낀다.

♠ 영혼을 살찌우는 맛있는 요리

따뜻한 봄바람에 봄 향기가 실려오는 듯
향긋한 꽃내음으로 절로 즐거워지는 사월의 어느 날,
한시 기도회로 성전에 올랐을 때,
환한 미소를 발산하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금영미 권찰님**이 그분이셨죠.
숨기지 않는 즐거운 미소에 은혜를 받은 저는
그날 저녁 권찰님께 순복음지 요리 코너를 부탁드렸어요.
조금은 어려워하실 거라 예상하였으나
권찰님은 예상과는 다르게 '낼 당장 만들어 먹자'는 호탕한 대답을 주셨어요.
영혼을 살찌우는 맛있는 권찰님의 요리를 소개합니다.

요리 제목

콜라 닭찜



재 료

닭 1마리, 감자 2개, 청양고추, 대파 1뿌리, 양파 2개, 당면, 당근 1개,
양념(콜라 0.6리터 ,간장 4큰술, 다진 마늘, 생강가루, 계피가루, 후추)

요리 순서

1. 냄비에 2리터의 물과 닭을 넣고 살짝 끓여 불순물을 걷어낸다.
2. 차가운 물에 닭고기를 깨끗이 한번 씻어준다.
3. 깨끗하게 씻은 뽀얀 닭고기에 당면과 파를 제외한 적당히 썬 야채들과 양념들을 함께 넣고 끓여준다.
4. 어느 정도 조려진후 당면과 파를 넣고 마저 조려준다.
5. 깨소금을 뿌려준다.
6. 하나님께 감사하며 맛있게 먹기 ^^

요리할 때 주의할 점

* 당면은 뜨거운 물에 불려준다.
* 기호에 따라 카레가루도 넣어주면 풍미가 더 좋아진다.

<이 달의 새가족 소개>

송정숙 집사님

* **고향** : 전라도 광주
* **누구의 인도** : 인천 친구 출석교회 목사님 소개
*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 성도간의 돈독한 관계
*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싶은가요?**
: 온전하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
* **가장 인상 깊은 성도**
: 원재옥 권사님의 와일드함.
(처음 교회 왔을 때 전도사님인줄... ^^)
* **각오**
: 특별한 달란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맡겨주신 일들을 협력하여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자녀의 구원과 건강
내 신앙이 바로서길 원합니다.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항상 조용하시면서도 보이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신 집사님을 환영합니다. 때론 어여쁜 꽃처럼 때론 강력한 독수리처럼 계신 자리에서 주님 주신 달란트 잘 감당하여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집사님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드보라여선교회 헌신예배 / 4월 10일
2. 교사세미나 / 4월 14일
3. 마리아여선교회 헌신예배 / 4월 17일
4. 봄여행 / 4월 18일~19일(1박2일)
5. 찬양예배 / 4월 24일
6. 태국선교사역 / 4월 25일~29일
7. 교회배 족구대회 / 4월 30일

◉ 공지사항

1.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 4월 30일까지
   일시 : 2017년 2월 20일~28일
   장소 : 이스라엘, 요르단

2. 탈북민돕기 동참 / 월 1만원 선교헌금
   주관 : 선교위원회

◉ 이달의 교우소식

1. 군입대 / 김병관청년 - 논산훈련소
2. 가족여행 / 한승권목사 - 전주
   이진영권찰 - 제주도

DJFGC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

교회 행사

부부동반여행(4월 8,9일)

(꼭잡은 두 손이 너무 예뻐요)

(당진 미스코리아 진선미 다모인 듯..)

웃자웃자 유머 한마당

* 소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 - '산마다 불이 탄다' (311장)
* 서예가들의 주제가 -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404장)
* 목욕탕 주인들이 좋아하는 찬송 -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215장)
* 학생들이 불러야 할 찬송 -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421장)
* 대머리들의 제일 싫어하는 찬송 -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299장)
*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애송찬송 -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476장)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473장)
* 감방에 죄수들의 기쁨찬송 -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수 없도다' (410장)
* 조깅하는 자들의 애송찬송 -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456장)

✝ 문서위원회 ✝

위원장 : 김미진 집사
위 원 :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권찰
전수현 권찰
조은희 성도

<인사말>

해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싹은 파릇파릇 돋아나고 꽃은 어여쁘게 피어납니다.
늘 똑같은 반복인데도 딱딱한 땅을 비집으며 작게 올라오는 새싹이 너무 반갑고 꽃은 언제 피어날지 몹시도 기다려지네요. 이제 약속한 적도 없는데 어김없이 우리들 앞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자연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서위원장 김미진 집사입니다.
수년전 우리교회에서는 순복음LIFE 라는 복음지를 만들어 성도님들께 배포하고 전도용으로도 사용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간증도 편지도 그리고 생활상식도 올려 주셔서 함께 은혜 받으며 마음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좋은 일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이제 4월을 맞이하며 저희 문서위원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예전만큼은 못되지만 돋아나는 새싹처럼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저희들이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새싹과 꽃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렸듯 복음지를 기다리고 계셨을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렇게 작고 언약하지만 NEW순복음LIF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성도님들께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작게라도 유익이 되길 기도하며 심사숙고하여 발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찾아가 간증이나 시 등을 부탁하면 거절하지마시고 기회요 축복으로 여기시며 참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다리고 반가워하는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복음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